

농촌체험관광 벨트화 추진 중

익산시, 삼락농정 시군특화 공모사업 선정

익산시가 농촌체험관광 벨트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한 첫 단계로 지난해 삼락농정 시군특화 공모사업에 선정, 마을만들기 중간지원조직을 구축해 이를 중심으로 익산시농촌마을만들기협의회, 농촌관광 전문가 및 관계자 등 거너년스 구축으로 마을사업 및 농촌관광 활성화에 디딤돌을 마련했다.

올해 준공된 정복형 농촌관광 거점 마을 육성사업, 체험형 슬로푸드 조성사업, 미륵산 창조적마을만들기 권역사업 등을 통해 체험형 농촌관광으로의 발판을 마련하였고, 농촌테마공원 내 농경전시관 및 농특산물 안내나눔실치로 불거리를 제공하였으며 현재 유아숲활동놀이터 조성, 생태동물체험관 신축 공사가 추진중에 있다. 또한 내년 전통농촌 초가 및 농경체험관 조성, 전복도 생태관광지 육성사업 중 식물화습원 조성사업이 완공되면 농촌체험관광의 거점으로서의 농촌테마공원이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농촌체험관광 코스화 기틀 마련을 위하여 다양한 활력사업을 추진하였다. 농촌체험직거래장터, 팜파티 지원을 통해 잠재되어있는 마을 및 경영체를 발굴, 참여를 유도하고 농촌체험관광 연계 지원사업을 시범 운영하여 도시민 유치를 위한 농촌체험프로그램 확대 기틀을 마련하였다. 내년에는 교육기관 대상 농촌체험활동비 지원확대 및 국내외 교육기관 인솔교사집을 초청 팜투어를 지원하여 농촌체험학습 기회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지난해 산별적으로 분포되어있는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익산농촌체험관광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고자 현장에서 농촌체험 관광을 운영하는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열어 소통의 시간을 통해 농촌체험관광 통합 포털사이트를 구축하였다. 관내 체험관광 및 숙박, 마을자원홍보, 축제정보, 유무형 마을상품 소개 및 기타 농촌관광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특히



유희환 익산시 미래농정국장이 농촌체험관광 벨트화를 추진중에 있다고 밝혔다.

농촌휴양과 체험관광 등 7개 분야에 대해서는 온라인 예약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정비하는 등 수요자 중심의 통합사이트로 운영하고 있다. 앞으로도 산별 관련 자료의 지속적인 업데이트 실시 및 교육청,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등학교 등 마케팅 강화를 지속적으로 펼칠 계획이다. 유희환 미래농정국장은 "기존 대부분 개별 농촌관광지를 잠시 경유하는

방식이었던 만큼 앞으로는 지역 체류와 함께 체험객의 편의를 높이고 내실있는 체험프로그램 개발 연계로 농촌관광 이용 활성화 및 도시민의 방문 촉진을 적극 유도할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겠다."며 "익산 농촌의 매력을 알리고 민관이 서로 어우러진 시스템이 농촌체험관광의 최고의 모델로 자리잡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익산=우병희 기자

김성곤 군산시의원, "가스누출 사고 등 근본대책 수립을"

최근 들어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분진 및 가스누출사고 등의 안전사고에 군산시의회가 근본적인 대책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시의회 김성곤 의원(조촌, 경암, 구암, 개동동)은 제21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 의원은 "서부발전전차 분진사고와 관련해 세군데 이상 분석기관을 선정해 종합검토를 요구했지만 군산시는

한곳만 선택해 서부발전측과 관계없다는 결과보고서를 제출하고 뒷집만 지고있다가 지난 11월2일 경암동 주택 옥상 및 지붕 등에 이물질이 덮여 있는 분진으로 예측되는 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뒤늦은 행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김성곤 의원은 "지난 2015년 6월 사업화규소 누출사고 때 OCI 관련 화학물질 안전관리조례를 제정하고 같은 타임 3분 안에 조치를 취할 수 있도

록 재난방지센터를 군산시에 유치할 것을 건의하는 등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강조한바 있으나 지난 11월 21일 OCI 화학사고가 또 발생했다"며 "시민안전을 위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수면에 위치한 원광빙고 공장의 암모니아가스가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해 주민들은 공장가동 중지야 추가 공장시설의 불승인을 요구하고 있다며 군산시의 특별한 관리를 당부했다.



김성곤 의원은 "군산시의 모든 행정은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최우선돼야 한다"며 "시를 비롯한 환경업무 기관 관계자들은 철저히 원인분석을 통해 다시는 유출사고가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줄 것과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유라시아 철도사업 추진... 정현율 익산시장, 익산역에서 주요현안 점검

익산시가 4일 유라시아 철도사업 등 익산역 현안 사업추진을 위해 익산역 대회의실에서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해 눈길을 끌었다.

이날 열린 간부회의는 정현율 시장과 각 국 소 단장, 본청 과장, 사업소장, 읍 면 동장 등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회의에서는 익산시 종합청렴도 평가, 부송4지구 도시개발사업, KTX익산역 복합환승센터 추진, 도로설계대책 등에 대하여 적극적인 대책방안을 토의했다.

특히 회의에서 정 시장은 "남북 화해무드 속에서 남북철도 인프라 구축

에 대비하여 전주~군산~김제 등을 연결하는 전북 광역전철망 구축계획 수립 및 KTX 역세권 복합환승센터 건립 추진 등 다각도로 노력해야 한다. 오늘 확대간부회의를 익산역에서 개최한 것도 이러한 이유"라며 "앞으로도 익산시가 남북교류협력사업 및 유라시아 철도거점의 중심지로 확고히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할 것"을 강조했다.

또 "불법투기를 일소하고 서민 생활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쓰레기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인하한다"며 "시민들이 이에 대해 알 수 있도록 홍보에 최선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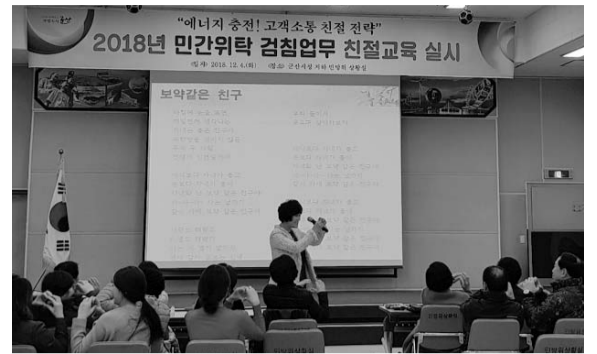
다해 달라"고 말했다. "연말연시를 맞

아 관내 거주 소외계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공직기강 확립에 힘써 주길 바란다"며 "연말 업무의 철저한 마무리와 2019년 업무추진을 위한 빈틈없는 준비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이어 "간부공무원이 회의 참석 시 자발적으로 대중교통 이용하도록 했다"며 "시장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하여 현장위주의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첫째 주에는 시 산하 전 간부공무원이 참여하는 확대 간부회의를 개최하여 현안사업과 시책업무의 공유, 토론회를 실시하고 있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는 상수도 업무 공무원·검침원들을 대상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상수도업무 직원 친절교육

군산시, 친절마인드 배양·친절 이미지 확립 교육 실시

군산시는 상수도 업무 담당 공무원 및 검침원들을 대상으로 고객 만족 친절교육을 실시했다.

지난 4일 시에 따르면 친절마인드 배양 및 친절 이미지 확립을 위해 미래고용나눔협회 박선영 강사를 초빙해 상수도 검침원과 담당 직원을 대상으로 고객만족 친절교육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고객들과 끊임없이 소통해야 하는 근무환경 속에서 일의 보람을 찾는 긍정적 마인드를 함양하고 다양한 민원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으며 동료와의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스킬 및 스트레스 해소 위한 힐링 소통법 등 업무에 도움이 되는 내용들로 구성되어 교육 참여자들의 높은 호응을 이끌어냈다.

김홍규 수도과장은 "친절교육을 발판삼아 형식적인 민원응대가 아닌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친절 마인드로 시민에게 감동을 주는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주기적인 친절교육을 통해 고객들과 윈윈하는 행정을 펼치는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군산=김정훈 기자

익산시, 말산업 농정트랜드 육성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말산업 특구로 지정된 익산시가 특구사업 VR 말산업 체험관 조성사업으로 20억을 확보하고 내년 2차 60억 중 26억 확보를 위해 재활승마 인프라 구축, 우량승마 육성 및 말사육농가 시설개선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고 밝혔다.

확정된 VR 말산업 체험관은 추진중인 공공승마장과 연계를 통해 승마에 막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 유·청

소년들에 대해 흥미로운 VR 체험을 통해 승마에 대한 친밀감을 높여 승마인구 저변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현율 시장은 "공공승마장은 주변 관광객 유치로 승마체험을 활성화 하는 한편 재활·힐링 승마를 특화 하는 등 투 트랙 전략으로 말산업을 육성하겠다"며 "지역 관광 인프라와 접목을 통해 공공승마장과 VR 말산업 체험관을 활성화해 새 농정트랜드로 키워나가겠다"고 밝혔다. /익산=우병희 기자

군산시드림스타트, 사랑의 김장 나눔 봉사활동

군산시 드림스타트 '사랑이음봉사단'은 지난 3일부터 4일까지 가정 중 김장을 담그기 어려운 저소득가정 60가구에 김장나눔 봉사활동을 펼쳐 훈훈한 감동을 전했다.

"사랑이음봉사단의 김장나눔을 통해 어려운 이웃들의 월동준비에 도움이 되어 따뜻하게 지낼 수 있기를 바란다"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의미

있는 일에 참여와 활동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사랑이음봉사단'은 군산시 드림스타트 부모들로 구성된 '씨앗 자조모임' 회원들이 사랑을 어려운 이웃에게 이어가자는 만든 봉사단으로 3월부터 분기별로 ▲밀반찬 제공 ▲추석명절 음식 나눔 봉사 등 나눔 활동 봉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군산=김정훈 기자



우리가족 면역을 생각한 NK프로젝트

N·1

엔·원

산학 공동연구 프로젝트

☑ NK 프로젝트 N·1

연세대학교 임상영양연구소 이종호교수 연구팀
고려대학교 식품공학과 이명원교수 연구팀

특허받은 유산균으로 만든 기능성 발효유

☑ NK프로젝트 N·1

• nF1 + 카제인균 + 비피더스 유산균 함유

☑ N·1이 NK세포에 주목합니다.




푸르밀 NK프로젝트 홍보대사 하지원